

22.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 2019년 9월 6일
- 제 안 자 : 김대현, 강민구, 김성태, 김원규, 박우근, 이시복,
임태상 의원
- 회부일자 : 2019년 9월 9일
- 상정일자
 - 대구광역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9년 9월 19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대현 의원)

☐ 제안이유

- 대구국제공항은 본 조례를 비롯한 공항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하였으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노선인 대구-제주간 화물운송물량은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고, 급기야 해당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사업철수를 예고함에 따라, 물류비용의 증가로 제주지역과 거래하는 지역 산업체의 수지악화와

함께 해산물 등 제주산 농수산품의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의 활성화사업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시켜, 제주와의 화물운송노선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국제적인 물류기업의 유치 등 물류산업육성과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항활성화사업’의 범위에 국내화물 운송사업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익성이 미약하더라도 대구국제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국내화물노선이 유지되거나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

□ 참고자료

- 신·구조문 대비표 : 조례안 참조
-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지방재정법」
-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완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김학수)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구국제공항 국내선 항공화물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한 항공사 적자 누적에 따른 공항 화물운송사업 철수에 대응하여 대구국제공항 항공물류 인프라를 보호하고 물류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임.
- 안 제2조에서 “공항활성화사업”의 정의를 개정하여, 당초 항공 여객운송과 국제화물운송으로 제한되어 있던 활성화 사업의 지원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는 최근 지방공항의 화물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항공사들은 국내 화물운송사업에서 철수하고 있으나, 다양한 육로 운송수단이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선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신속한 운송이 필요한 신선식품 등에 대한 대체 항공노선 마련이 시급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됨.

<전국 주요공항 화물처리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 천톤)

구분	합계		국제선		국내선	
	처리량(천톤)	점유율(%)	처리량(천톤)	점유율(%)	처리량(천톤)	점유율(%)
전체	3,152.7	100.0	2,911.6	100.0	241.1	100.0
인천공항	2,857.9	90.7	2,857.9	98.2	0.0	0.0
김포공항	127.7	4.1	33.4	1.2	88.3	36.6
김해공항	43.5	1.4	20.0	0.7	23.5	9.8
제주공항	114.4	3.6	0.2	0.0	114.2	47.4
대구공항	4.7	0.1	0.0	0.0	4.7	2.0

- 이에 대구국제공항 항공물류 인프라 보호 및 화물운송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공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사업철수를 예고함에 따라, 새로운 업체가 운송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하는데 수송비용이 기존 보다 더 인상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 새롭게 참여하는 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과도하게 수송비용이 인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